

06 의정마당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정책사업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하다가 지난해에 전격 해체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A. (구청장) 우리 구 자체사업이 아니고 서울시나 정부와 연계해서 정부와 서울시의 어떤 정책방향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만 중화뉴타운 사업, 망우북합역사 건립 등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Q. (김근중 의원) 중량구의 올해 예산규모는 약 3,3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가용예산은 전무한 상태이다. 구청장 주요 공약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약 3조 8,039억 원에 달한다. 가용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또 3선에 도전하면서 나름대로 이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에 이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예산계획이 짜여 있는지?

A. (구청장) 공약을 할 때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사업에 대한 공약, 또 서울시와 연계된 공약,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될 공약 등을 판단해서 한다.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들은 작년까지 8년 동안 구청장을 하면서 계획했던 대로 다 해냈다. 공약한 내용들을 임기 내에 다 완성은 못하더라도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은 방향을 확정하고, 또 다 추진 못하는 것은 착공 또는 확정을 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Q. (김근중 의원) 구청장의 임기 동안에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남은 3년 동안에 의욕적으로 벌려놓은 대형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과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것을 구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구청장)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현재 추진해야 될 사업을 더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구청장이 진두에 서서 지휘할 것은 적극적으로 지휘를 하고, 또 외부기관 관련 사업들도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사업이 제때 완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3년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대 호 의원(중화1, 2동)

▶ 신상봉역 일대의 중심지 500m이내의 광역적 도시계획에 의한 구상이 있는지?

Q. (강대호 의원) 신상봉역은 청량리 부도심으로부터 4km의 동북권 생활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접근이 용이하고 교통요충지로서 중량구의 중심에 입지하고 있어 생활권

중심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신상봉역 일대 개발을 위한 구상이 있는지?

A. (구청장) 신상봉역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구역을 확대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 또 작년 6월 30일에 개정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서 고밀복합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다. 이 세 가지 방안 가운데에서 고밀복합형 개발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Q. (강대호 의원) 신상봉역은 서울동북권의 중심 도시를 커녕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인근 배후도시로부터 밀리며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서울 동북권의 관문이자 중앙선과 경춘선 복선이 개통되면서 그 어느 구보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유인할 만한 기성 시가지는 기존 인프라와 콘텐츠가 전무하다. 때문에 중앙선과 경춘선이 개통됐지만 경기도나 강원도 사람들이 신상봉역 일대에 머물지 않고 있다. 신상봉역 주변에 외부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업무시설, 쇼핑공간, 문화시설, 도시공원, 위락시설 등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또 신상봉역 일대를 중심지 500m 이내의 10만㎡ 이상 고밀복합형 개발로 신촌, 강남 압구정동, 천호동 로데오거리, 노원구 상계동 문화의 거리 등과 같이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구청장)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상봉재정비촉진개발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는 상봉재정비촉진개발계획을 통해 그 일대를 교통의 요충지에 걸맞은 지역으로 개발하고, 2개 이상의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은 고밀형 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나머지 상봉역, 신상봉역을 중심으로 한 500m 이내의 범위는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일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서 고밀복합형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다. 10월쯤 끝나게 되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될 것이다. 개정이 되면 상봉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 (강대호 의원) 지금까지 다른 지역은 상업지도 만들어서 용적률 500%, 600%를 만들어 줬고 준주거지역도 만들었다. 유독 신상봉역의 북쪽은 시골의 읍 단위만도 못하다. 역세권에서 1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지금 분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동네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신상봉역이다. 이런 교통요충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신도림역하고 신상

봉역 일대뿐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구청장) 작년 연말에 경춘선 전철이 개통됨에 따라 신상봉역이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 그러한 교통요충지에 걸맞은 개발계획을 만들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Q. (강대호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평가받았던 아주 대표적인 법률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06년 9월로, 중량구는 두 곳이 해당이 되었다. 어디인가?

A. (구청장) 정풍연립하고 우성연립 두 곳이다. 그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통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 환수제도가 생겨 부담이 추가로 생겼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납부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해 주는 제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풍, 우성연립에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3년 연장해 주었다.

Q. (강대호 의원) 지금 우리 중량구는 도정법에 따라 약 25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살아있다면 이 25개 구역의 주민들은 많은 재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구청장)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

Q. (강대호 의원) 이 초과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징벌적 규제로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행정목적 달성이 수 있을지는 모르나 납세능력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미실현 이익 발생분에 대한 환수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1억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50%를 이 법률에 따라 부과하게 돼 있다.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우리 주민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김 규 환 의원
(면목본동, 면목2,5, 상봉2동)

▶ 구 발주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Q. (김규환 의원) 금년도 전자계약 403건 중 수의계약이 206건이다. 그 중 우리 관내 업체에 몇 건이나 수의계약으로 주었는지?

A. (구청장) 우리 지역의 경제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에 다 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다. 2010년도, 2011년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관내와 관외 발주현황을 조사 중에 있다.